

기고

119구급차, 꼭 필요한 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 119.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자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오·남용으로 정말로 위급한 환자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 진도소방서에서는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자제해야
단순 감기, 만성질환 관리, 정기 병원 이송 등 생명이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구급차가 중증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커지므로,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응급현장에서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하는 폭언·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대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최근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응급현장에서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합니다.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을 존중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비응급 시에는 119 상황실에서 상담 가능
생명이 위독하거나,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119상황실에 연락하여 의료 상담·약국안내·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도소방서 소방서장 김재철

칭찬은 일반적으로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지만, 아랫사람이 뒷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뒷사람이 칭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버릇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 칭찬은 찬반 세력과 지지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꺼린다. 그렇지만 정치인이 국민주권과 국익, 정의의 실현을 위해 업적과 성과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경우라면 우리는 서슴없이 격찬과 응원을 해야 한다.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화주 한 잔 드리고 싶다

정철학과 국민 자존심 양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캄보디아에서 불행하게도 한국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신속히 여행경보 발령과 동시에 현지에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여 코리안 데스크 설치, 공적개발원조(ODA)를 축소 압박하면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입국시켜 조사받도록 했다. 또 이 사건의 배후에 온라인 투자 사기와 불법 금융 범죄의 당사자인 프린스그룹 회장 첸스를 세계 뉴스망에 알려져, 한국, 미국, 영국, 유럽 등 국가에서 그들의 자산을 몰수하고, 미국 법무부가 아시아 최대 조국가적 범죄 조직 수괴로 기소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면에 "한국 군사 개입 없이 완벽한 인질 구출, 21세기 외교의 새 기준"이라며 톱으로 실었다. 영국 가디언의 헤드라인은 "한국이 증명 한 것, 진짜 강국의 조건"이라 했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며 사실을 실었습니다. 이러

한 발 빠른 정부의 대응조치를 보노라면 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다.

APEC은 회원국 간의 경제적 협력과 무역 자유화를 촉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회의로써 6 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에 한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불 현금 선급이라는 감당 불가능한 요구를 2,000억 불(10년 분할)과 금융 보증으로 전환했다.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나아가 핵 우라늄 농축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까지 공감할 연어,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재정이 될 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최대의 전략적 능력을 확보했다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과 핵잠수함 연료로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확연히 기록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실리 획득을 넘어, 굴종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 독립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역사적 담판이다. 마치 고려시대 거란의 80만 대군 앞에서 굴종하지 않았던 '서희의 전략'

과 비견된다. 서희는 모두가 항복과 영토 할양을 외칠 때, 홀로 적진에 들어가 거란의 의도를 꿰뚫고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냈다. 피 한 방울 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웠던 것과 뭐가 다를까! 이재명 정부의 '거친 협상가'들은 서희가 보여준 통찰과 폭심을 21세기에 재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국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 통화 스와프 연장과 FTA 2단계 협상 등 경제협력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고,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도 서명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간 엔비디아(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젠슨 황 CEO를 만나 26만 장 규모의 GPU를 확보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AI 선두 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대단한 큰 성과요,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가장 강력한 동맹을 상대로 '할 말은 하는' 새 전통을 세웠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자주 외교'의 금자탑이다. 70년간 미뤄왔던 우리의 실질적 독립, 바로 이 담판에서 시작된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승리이며, 우리 국민의 승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쾌거요, 큰 괄목한 업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장관 및 전문가가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불태우는 열정과 고민의 덕분이었으므로, 국민을 대표해서 이분들에게 국화주 한 사발 올리고 싶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음력 9월 16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con and a short paragraph of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